

새로운 포장기계 혁신의 장, ProPak China

10개 회사 한국관 참가, 142만불 계약 성과 이뤄

김 영 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부회장

금년 11회째를 맞아 개막된 ProPak China 2005 전시회에 한국관이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와 KOTRA(대표이사 홍기화)의 공동 주관 사업(P-2)으로 추진되어 2005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3일간)까지 중국 상해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전체 규모로는 전시면적 22,000㎡와 20개국 456개 회사(외국회사 211사, 중국회사 245사)의 참가로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컸으며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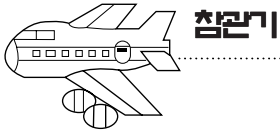
이 전시회는 포장기계협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국가관을 형성하여 참가해 온 전시회로 2001년도 전시회부터 매년 참가하여 금년 들어 5번째로 참가하는 전시회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사가 대규모로 참가하는 정평있는 중국 내의 국제 포장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한국관에는 (주)한국크리에타를 비롯하여 (주)선진에스엠, 을성정공, (주)디에스아이, (주)커포텍, (주)나우시스템, (주)스카이소프트셀, (주)양현기공, KOTRA, 한국포장기계협회 등 10개 회사가 참가하여 총 150㎡의 부스 운

영으로 총상당 262건, 693만불 상당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계약추진 142만불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홍콩,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대만, 영국 등 총 20개국이 참가하여 포장의 모든 것, 즉 기술과 품질 그리고 신뢰성 높은 최신 기계와 제품을 선보임으로 마치 독일 뒤셀도르프의 Inter Pack을 방불케 할만큼 국제적이고 수준 높은 전시회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29사), 독일(30사) 이탈리아(26사), 미국(31사), 스페인(5사), 대만(29사), 영국(12사) 등이 국가관으로 참가하여 총 외국사가 211사가 참가하였다. 특히 1,000㎡에 이르는 대규모(29사)의 국가관을 형성한 일본관은 국가관 참가국 중 최대 규모였으며 외국관 전시장을 압도하는데 충분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2006년도에도 금년보다 약 15% 정도 증가한 전시면적을 계획하고 있다.



◀ 포장기계협회는ProPak China2005 참가했다.

이처럼 포장기계의 선두주자인 독일, 미국, 일본 등의 대규모 전시 참가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5년도 중국 내의 포장기계 생산량은 약 67만대이며 오는 2010년도에는 약 93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는 중국기업의 기술향상의 한계로 인하여 수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장기계의 고속·정밀·신뢰성의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중국의 포장기술이 특히 컴퓨터 라이징화, 원격 자동제어기술, 쉘링기술 등의 자동화 기술의 미흡으로 향후 몇 년간은 외국 포장기계의 수입 선호가 계속 늘 것이라는 분석은 이들 선진 국가들의 중국 내 전시 참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람객 역시 국제 전시회 답게 30여 개국의

로부터 약 14,000명이 방문. 상담하였으며 이중 한국인의 방문은 약 1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전시기간 중 눈길을 끈 전시기계는 중국 항주中亞기계유한공사의 시간당 12,000개 생산 가능한 DXR-12000HB(자동 컵 성형 충전 실링기)와 일본의 중국현지생산회사인 상해 ISHIDA사, 상해四國사 및 TOPAK사 등의 각종 전시기계는 방문객의 시선을 집중하기에 충분하였다.

한국관에는 (주)한국크리에타의 튜브 충전기와 (주)선진에스엠의 각종 라벨러와 음성정공의 삼면포장기와 각종 밴드실러 및 (주)나우 시스템의 금속검출기 등이 관심의 대상 품목이었다.

한편 KOTRA와 한국포장기계협회의 홍보부스를 통하여 내년 3월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KOREA PACK 2006의 홍보를 실시하여 중국



◀ ProPak China 2005 전경

인의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으며 (주)삼각기계, (주)코마스 등 2개사가 자사 카탈로그 전시를 통하여 자체기계의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 중 상해인근의 포장단지인 상해포장·인쇄성의 방문과 중국 상해포장성의 방문이 실시되어 중국내의 한국포장업체의 진출의 교두보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상해 포장·인쇄성에서는 한국기계의 무료 전시장의 제공도 제안하는 등 한국포장업체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원사 중 상해포장성에 사무소를 둔 (주)한국크리에타(대표이사 신현제)의 상해사무소 및 전시장 방문과 중국 창수공단 내의 현지공장을 운영중인 창수대명기공유한회사(총경리 허남익)와 창수우성포장기계유한공사(총경리 오피제)의 현지공장 방문과 간담회는 중국진출 예정자들의 관심과 큰 도움

이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KOTRA 본사 전시팀의 사전 친절한 안내와 설명회 그리고 현지 KOTRA 상해 무역관 본부장의 세심한 배려와 담당 과장의 열성적인 지원은 본 전시회의 참가 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ProPak China의 한국에이전시인 IPR직원의 현지 출장으로 인한 도움으로 한국관 참가사 모두들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 ProPak China는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로 2006년도에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SNIEC에서 개최되며 역시 KOTRA와 한국포장기계협회는 공동 주관(P-2사업)으로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늘어난 200㎡의 면적을 주최자 측에 요구하고 귀국하였다. ☐